

산불 날 때 골프를 치면 더 재미있다? 짜릿한 맛. 그대들이 이런 묘미를 알 수 있겠는가. 산불 속에서 공치는 맛. 그것 참 흥미진진하겠는가. 잠깐,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 있다. 산불 날 때 아무나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불 같은 재난 발생시 총괄 지휘할 책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그래야 산불 날 때 골프 치는 맛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식목일에 산불이 났다. 심은 나무보다 불에 타 죽은 나무가 더 많다. 식목일은 무엇 하러 만들었는가. 그것도 공휴일로 삼아, 편한 등산객들 산으로 보내 화재 위험을 가중시켜 가면서 말이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산불이나 내지 말라. 담배 들고 산에 가지들 말고 차라리 골프장에 가라. 이해찬 총리가 숲속수법을 하지 않았는가. 재난상황을 점검하거나 복구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기보다 당장의 골프 채취두르는 맛에 탐닉하여 한다. 그런데 말이다. 총리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사이에 강원도 산불은 다시 일어났다. 그 결과로 천년고찰 낙산사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골프판 없어도, 사천 집집마다 총싹이 났어도, 낙산사는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문제이다. 책임의식이 문제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 범 도
미술평론가·경원대 미술대 교수

‘감투’ 들이여 연꽃을 보라

낙산사 화재현장을 보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말했다. 전소한 건물들은 6·25전쟁 이후의 것이라고. 소실된 범종은 6개월 이내에 복원 가능하다고. 아니 한번 불에 타 녹아내린 종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결코 양도 그렇지만 소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의 출세작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낙산사의 문화재를 별 별 잃는 것으로 기술한 전력과 맞게 너무 안타깝게 접근한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다. 문화재청장이 무엇보다 추진해야 할 일은 문화유산보호 대책의 수립이다. 전국의 사찰, 과연 화재로부터

자유스러우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범종 복원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나는 주장하고 싶다. 낙산사 화재의 현장을 보존하라고. 교토의 불에 탄 법통사 목탑이 보존되고 있듯이 우리도 타다 남은 잔해를 보존하여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전 또 무엇인가. 한국마사회는 뇌물사건으로 시끄럽다. 그동안 낙산사 인사 너무 하려면 서 말도 많더니 끝내 뇌물잔치로 얼룩이 졌다. 하기가 한 해에 매출 5조원이 넘는 마사회라니

뇌물 ‘몇 폰’ 행기는 첫,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우리 서민은 언제 사고고든 상자가 꽃 감 상자를 받아 볼 것인가. 그 상자 속에 토산물 대신 거금이 들어 있겠다. 공기업 비리의 경연장 같다. 하기가 마사회뿐이겠는가. 오늘도 어떤 공직의 나리께서 은밀히 ‘상자’를 건네받고 있을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 밀천 행까지 없으면 바로바로 되는가. 공직자의 윤리가 문제이다.

한국은 예전부터 ‘뇌물천국’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부정부패가 만연된 사회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근래 비리에 연루되어 4명의 장관이 낙마를 했다.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청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물단지가 되어 더 난리들이다. 전직 대통령을 역시 검은 돈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 땅은 검은 돈의 천국인가. 하기가 아직도 ‘차떼기 정당’이 큰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되지만, 뇌물을 받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만 괜히 바보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철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정갈 고위 공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오늘도 ‘감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지르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감투’ 들이여, 진흙탕에서도 청초하게 사는 연꽃 한 송이씩을 가슴 속 깊이 품고 다닐지어다.

불자의 눈

무소유를 근본정신으로 하는 출가인들의 공동체인 승단이 소유 때문에 일어나는 오욕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덕이는 일들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수없이 불교를 명들게 한 부끄러운 사건들을 겪고서도, 한국불교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아온 것은 아닌가? 이번 불교사와 화엄사 등으로부터 들려온 부끄러운 이야기에 또 한번 갈가리 찢겨져버린 불자들의 가슴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주요 불교계 단체들의 엄한 요구가 담긴 성명이 발표됐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이번 기회에 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니 일단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회와 사정 조처들이 취해졌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간의 조처들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하기에 이번의 자정을 위한 조처들도 표면만 불합하는 고식책이 되지

‘자정’ 일회성이어선 안된다

않는다는 의구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노력과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숙해진 불자들의 의식이 등을 돌릴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의 재정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지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라면 지금의 승단 구조상 말 그대로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 제도가 현재 승단이 지니고 있는 문종과 인맥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정성과 엄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두가지 과제에 조계종단은 당면한 것이다.

우선 이번엔 드러난 사건의 처리부터, 모든 불자들이 엄정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도록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확고한 자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부대중이 함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출가승단은 재정운영의 지향점을 제시·감시하고 실제 운영은 재가불자들이 맡는 방식도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언제나 풀릴 수 있는 외양간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부서진 곳만 손질하곤, 외양간 잘 고쳤는데 또 소를 잃었다고 변명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이렇게 들었다

은둔형 외톨이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어할경>

한 집에 살면서도 즐거울 때 같이 즐겁지 못하고,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그들이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이 넘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은 채 살고 있다. 친구나 가족간의 대화 없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하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부산에서 방 안에서만 지내던 10대 소녀가 목을 때 자살했다는 소식이나, 4월 13일 방영된 KBS 2TV ‘추적 60분’에서 소개된 7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한 20대 남자의 이야기는 ‘은둔형 외톨이’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는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확산 등 사회구조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위의 무관심과 가정 붕괴, 부모의 폭행, 학교에서의 왕따, 컴퓨터 중독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자신이 만든 성 안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은둔형 외톨이’는 특정한 인이 겪는 ‘질병’이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여수령(해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대불련 미래 안보나?

작금의 대불련 사정이 안타깝다. 지방 도시의 현실은 서울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 지도간사? 없다. 지역 스님들? 전혀 관심 없다. 대불련이 지역 스님들께 인사한다고 연락하면 모두 숨는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본다.

예전에 지역 4개 대학에 대불련 지회, 연합으로 고등부가 있었는데, 5년 전쯤 고등부가 사라지더니, 3년 전엔 대불련 지회가 2개로 줄었다. 아마 내년쯤엔 한 개나 남았으려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졸업한 선배들의 대불련에 대한 조그만 열정뿐이다. 대불련 생활 수년간 하면서 조그만 포교용 책자 하나, 제대로 된 포스터(대학생 눈높이에 맞춘)하나 받아보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곳 도시의 작은 절 주지스님도 고급 승용차를 탄다. 포교라는 명목으로 해외도 자주를 나가는 것 같다. 이게 현실이다.

아마 5년 뒤쯤엔 대불련은 없을 것이다. 7년쯤 뒤엔 청년회가 그렇듯 모른다. 다음엔 사찰이 한두 개씩 문을 닫는 지도 모른다. 신도가 없으니 환속하는 스님도 많아질 것이다. 곧 닥칠 현실이다. 대부분 스님들은 몇 년 뒤 따쳐올 현실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아니 외면하는가?

지방도시불자(웃다스)

인사동에 한국 불상 없다니

인사동에는 불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불교용품과 전통용품들이 있다. 현대불교 521호에 실린 인사동에는 한국 불상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며 놀라기 그지없었다. 당연히 한국 불상이고 한국 불교용품이라고 생각한 그 많은 불상들이 한 가격에 수입된 중국과 동남아 불상이라는 것에 아찔할 정도였다.

인사동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지만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이다. 한국의 전통을 알고자 그 문화를 접하고자 독특한 전통문화를 담은 불상을 소품으로 사가지고 갔는데 중국 여행에서 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문화는 중국의 아류품으로 취급당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양질의 불상을 만들어 다 거액이 비싸 상점에서 사가지 않는다는데 할 말이 없다. 언제나 우리 쌀 지키기 위해,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 한복판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집약했다 볼 수 있는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한국의 전통은 없다는 것이 분한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육성시키는 길은 저질상품을 몰아내는 길에 있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바로 잡을 길을 빨리 찾았으면 한다. 더

이상 외국의 전통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로 둔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정희(서문경서서회 회장)

올해는 자비의 손길 내밀었으면

4월 초파일이다 다가오면 항상 다니고 있는 절에 가족 연등을 달아준다. 마음을 모아 사귀들의 이름이 모두 적힌 등등에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엔 현대불교신문을 보니 내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등을 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를 진행한다고 했다. 올해 봄속 표어인 ‘나눔’을 하나되는 세상’에 걸맞는 등 밝히기라고 보여진다.

나도 올해는 내 가족만을 위한 등 달기에서 내 이웃을 위한 연등 달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 불자라고는 해도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한 번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등을 달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는 지금 더욱 부끄럽게 다가온다.

불교의 기본이 ‘자비’이다. 그러니만큼 자비의 실천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인 등 달기를 이번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달아보려고 한다.

김인숙(부산시 동래구 명정1동)

‘연대’ 민영

심민섭

불란 낙산사 복원

불길같은 지원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가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태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가가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꼭 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히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424쪽 각권정가10,000 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히규)
동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명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주요수룩내용■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만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래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입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공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남자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성명학-누구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꿈 해몽 비법 ▶피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팔자로 손(掌) 보는 법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